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7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 거래고객
(주)에스케이텍스 정현분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 거래고객
퀸스산부인과 이항재 대표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전 진행자 송승환·단필층의 장용



10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공개방송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6 이달의 편지
'생일의 기적'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에스케이텍스 정현분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퀸스산부인과 이항재 대표



80 코너 속 편지
'수학에 빠지다'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돌아보면 잠깐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광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를 빛내주신 전 진행자 송승환·단필총의 장용

글 | 박금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추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누구는 추억을 ‘거대한 저장소’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언제든 그때로 시간여행 갈 수 있는 거대한 저장소. 또 누구는 추억은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아 좋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3일 열린 화요일 시간에는 여성시대 안에서 공유하는 우리의 추억을 찾아 나누려고 전 진행자 송승환 씨와 여성시대의 전설이 된 ‘단결 필승 충성’의 영원한 참모병장 장용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송승환 : 제가 2004년 봄부터 3년 동안 여성시대 가족들과 함께 지냈네요. 난타 만들고 해외공연이 활발하던 때라 출장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저는 늘 라디오를 좋아했고 바빠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심야 프로그램은 양희은 선배님 뒤를 제가 이어받아서 했어요.

1965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책 잘 읽는다고 선생님이 저더러 어린이 이야기 대회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1등 하는 바람에 방송국에 출연했다가 어린이 프로그램 ‘은방울과 차돌이’의 진행자 차돌이가 되었고 아역 배우가 되고 연극과 영화도 하고 난타도 만들고 그렇게 됐죠. 데뷔 60년이라 사진전과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용 : 군대 경례 구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를 뽑아 만든 군대 이야기 코너 - 단필총 첫날, 이렇게 신고하며 시작했습니다.

“필승, 해상병 262기 개그맨 장용은 2003년 10월 30일부로 남성시대 장용의 단필총 코너지기로 명받아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당시에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만들면서 3년 위 군대 선배인 김승



현 씨 추천으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죠. 김승현 수병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단필충은 2023년 5월까지 19년 7개월 방송했습니다. 요즘도 '단필충 잘 들었다, 끝나서 아쉽다고 인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팟캐스트로 계속 듣는 분들도 많고요. 저 스스로를 참모병장이라 칭했는데 '참모병장'이라는 계급은 국방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은 계급입니다. 참모총장과 말년병장을 합쳐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성시대 남자 진행자들은 김승현, 서경석 씨 빼고, 전유성, 강석우, 송승환 형님은 몇 대 독자들이라 육방(6개월 방위)이었거든요. 단필충 시간에는 꼬리를 내리셨죠.

🎙 송승환: 제가 여성시대는 만기 제대하려고 3년 짝 채웠습니다. 제가 6개월 방위로 군대에 가긴 했는데 훈련받자마자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찍

은 첫 영화에서 대위 역할을 했습니다. 이병인 제가 대위 계급장 달고 병장들한테 경례 받았단니까요. 제가 SS(숫타임 솔저)이긴 하지만 그래서 LS(롱 타임 솔저)도 다 소화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기간에 여성시대 30주년 기념으로 '서른 살의 여성시대'를 한 일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코엑스에서 200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른 쌍의 합동양콜결혼식, 오픈 스튜디오, 여성 팔씨름왕 선발대회,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한 '결식 어린이 돕기 바자회', 전시관에는 옛날 라디오들, 월간 여성시대와 손편지들, 여성시대 기념품들이 전시되고 대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하셔서 함께 편지 읽은 일도 생각합니다.

장용 : '서른 살의 여성시대'에서 저는 '사랑의 김장'을 했습니다. 빨간 앞치마 입고 고무장갑 끼고 여성시대 가족들과 코엑스 무대에서 김장해



서 큼직한 김치통에 넣어서 불우이웃에게 전달한 뜻깊은 자리였죠. 또 무료 급식소를 비롯해서 청취자들이 계신 곳으로 마이크 들고 나가서 현장 취재한 일들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영리법인인 ‘한국가위바위보험회’에서 회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3년 반 동안 SNS에 올린 짧은 시를 묶어서 ‘나도 썼어 너도 써 봐라’는 시집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승환 형님 지팡이에 불이 들어와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하신 후에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고 당당 이님들이 걱정하시네요?

송승환 :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처럼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방법은 있더라고요. 요즘은 다 듣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듣고 대본도 들어서 기억합니다. 문자를 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연극 연습할 때도 ‘세 발자국 가면 책상 뒤로 두 발짝 가면 무대에서 떨어지니까 안 되고!’ 하면서 기억해 두니까, 공연도 무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찾아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지팡이에 단 이 라이트도 밤에 휴대폰으로 손전등 켜랴, 지팡이 짚으랴 두 손이 너무 힘들어서 단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눈이 좋으면 왜 이걸 만들겠습니까. 잘 보였으면 못 느꼈을 기쁨이지요. 그렇게 낙담하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성시대는 저를 겸손하게 한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에 난타 성공하면서 붓 떠 있을 때 여성시대 가족들 편지 사연이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장용 : 공자님 말씀대로라면, 여성시대 50년도 ‘지천명’입니다. 지천명으로 여성시대를 표현해 볼게요. 지-지고지순! 천-천년만년! 명-명불허전!

여성시대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성시대의 지난 50년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찾습니다' 방에서 당당이님들이 보내신 사진으로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단팔총이 그리운 분들은 휴대폰에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를 깔고 거기서 팟캐스트 방으로 들어가서 '단팔총'을 검색하면 1,300여 회의 단팔총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팔총은 영원한 코너지요.

그날 열린 화요일은 당당이님들의 박수 속에 장용 씨의 부케였던 '주말용'의 노래 '짜장가'를 들으며 작별했습니다.

전국의 여성시대 가족들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송승환 씨와 장용 씨를 비롯해서 진행자들과 코너 지기들이 밀어주신 덕에 여성시대가 방송 50년을 채우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50+h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975년, 그 해는 유엔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습니다. 엠비시 라디오는 세상 약자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손길을 여성이라 묶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시간 '여성살롱'을 탄생시켰습니다.

1988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던 시기 '여성살롱'은 '여성시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내 안의 다른 나를 알기 위해 여성시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내 아이를 알기 위해 여성시대를 듣습니다.

2025년, 여성시대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방송 50주년을 축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특집 공개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서울 상암동 엠비시 앞 문화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1,200여 분의 여성시대 당당이들을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수 황가람, 풀킴, 힌, 전영록 씨를 무대에 모셔서 노래도 듣고, 객석의 당당이님들께 마이크를 드려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환호와 열광,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던 그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나의 취미

[이은실]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볼링을 치고 있어요. 둘이 음료수 내기도 하고 집안일하기 내기도 합니다. 오롯이 둘이 치는데 행복합니다.

[최현진] 제 남편은 무궁화호 기차 타고 시골 오일장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가서 먹는 수타짜장면과 순대국밥 그리고 옛날 다방, 최고입니다.



[박은식] 제 취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차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세 시간 동안 닦고 반짝반짝 광나는 차 보면 기분 좋아요. 오늘도 퇴근하고 세차하러 가려고요.

[7385] 육십을 바라보는 이 아재의 취미는 웹툰 읽는 겁니다. 아내는 책 대여점에서 빌려 보는 줄 알고 있지만 각종 웹툰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봐서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씩니다. 낯시가 취미인 친구들보다는 훨씬 적게 쓴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4930] 저랑 남편은 술을 줄이려고 도자기 클래스를 주말마다 가요. 갈 때마다 소주잔 빚어 오는 건 비밀이지만요. 같이 만든 잔에 가끔 한잔은 좋은 거 같아요.

[김일도] 저는 도시 텃밭 신청해서 아내랑 같이 텃밭 가꾸는 게 취미예요. 어제도 저녁에 같이 가서 방울토마토에 물 주고 왔어요.





- | | |
|-------------------|------------------|
| 18 생일의 기적 | 48 나의 이웃들 |
| 20 가화만사성 | 54 입양, 사랑이 시작된 날 |
| 23 퇴근 후 접선 | 57 미평 학교에서 온 편지 |
| 27 챗지피티를 통해 | 60 아들 걱정 |
| 31 머리 하는 날 | |
| 35 나를 안아주다 | |
| 39 마라톤 한 번 더 해볼까요 | |
| 44 깊은 잠에 빠진 딸 | |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생일의 기적

박혜림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저는 올해 결혼 3년 차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꼭 전하고 싶은 축하가 있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 마흔 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남편이에요.

사실 우리 가족은 ‘생일’ 하면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2023년 저희 부부는 두 번의 유산 끝에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조심 또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고 예정일은 4월 27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5월 2일 남편의 생일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날 분만실에서 저는 진통으로 눈물 흘리고 남편은 감동으로

눈물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생일 선물이 또 있을까?”

그렇게 우리 아들은 아빠의 마흔 번째 생일을 1년 앞두고 세상에 온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딸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2024년 11월 26일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엔 하루 빨리 나와 버렸지 뭐예요. 11월 25일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아빠 생일에 아들이 태어나고, 엄마 생일에 딸이 태어나고,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생일은 일 년에 이틀만 챙기면 된다’라는 농담을 하며 살고 있어요. 5월 2일엔 아빠와 아들 생일, 11월 25일엔 엄마와 딸 생일. 심지어 케이크도 하나로 나눠 쓰니까 효율적이죠.

올해 생일도 아기 상어 케이크에 촛불을 두 번 붙여 아들과 남편 생일을 축하해줬답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을 지켜준 남편이 있습니다. 두 번의 아픔을 저와 함께 견뎌준 사람, 내 생일에 생명의 무게를 함께 나눈 사람 그리고 올해 마흔 번째 생일을 맞은 사람.

“여보~ 당신의 마흔 번째 생일을 우리 가족 모두가 온 마음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생일마다 기적처럼 아이들이 와준 것도 결국 당신이 늘 믿고 기다려줬기 때문이었어요. 라디오를 통해 당신에게 전합니다. 여보, 마흔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생일마다 기적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02

가화만사성

노태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저는 살아가면서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방문 위쪽에 걸린 액자 속에 '가화만사성'이란 한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그저께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던 중 제 실수로 차가 앞으로 더 나갔습니다.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차를 살짝 밀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고 4cm 정도의 굵은 자국이 살짝 났더군요.

그 기사와는 점심때쯤 만나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카님, 사고 났다면서요?”

얼마 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삼촌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더군요. 삼촌이지만 저보다 8살 어려서 제게 존댓말을 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물었더니 사고당한 기사와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친하대요. 그 기사는 우리 삼촌인 줄 모르고 사고를 의논한 거죠. 이름은 몰라도 우리는 택시 번호로 서로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촌은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50만 원을 갖고 나갔습니다. 대충 그 정도면 될 거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우리 셋에다가 택시 회사 지부장까지 불러서 의논한 결과 60만 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삼촌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기에 안 먹었지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하루 수입에 60만 원을 벌려면 1주일 넘게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니다.

근데 지부장이 제게 전화해서 그 기사가 25만 원을 더 요구한다고 말하더군요. 차 범퍼를 다 갈아야 하고 허리도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굽힌 자국만 손보면 되겠고 살짝 차가 움직였는데 허리가 아프다니요.

“그 기사 웃긴다. 장사를 하는 거야 뭐야?”

아내와 딸은 화를 냈지만 제가 잘못된 걸 어쩍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그들에게 점심을 사준 값까지 결국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몇 년 전에 사고를 낸 게 있어 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더는 보험료를 올리기를 싫어 현금으로 처리한 겁니다.

저녁에 퇴근하니까 아내가 “오늘 같은 날은 좀 마셔요” 하면서 술과 안주로 아구찜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마시는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방으로 왔는데 휴대폰 문자가 왔더군요. 아내가 80만 원을 제 통장으로 넣은 겁니다.

“금액 맞춰서 십만 원 더 넣을까?”

아내 물음에 됐다고, 수입도 없는 사람이 된 돈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95세의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척추골절 후유증도 있어 힘든 일을 조금만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 어머니 방에 다녀온 아내가 5만 원권 수십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당신 주래.”

세어보니 90만 원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놨다가 쓰신 거죠.

그런데 더 감동한 사연이 있습니다. 출근 전에 보니 제 휴대폰 밑에 봉투 하나가 놓였더군요. 봉투를 열었더니 봉투 뚜껑 안쪽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아빠 님 속상해하지 마세용~! 그럴 수도 있종 사람인뎡. 힘내용 기운 내세용♡~ 절세미녀 올림~♡>

절세미녀란 말에 웃음이 마구 나왔습니다. 거기엔 5만 원과 1만 원이 섞인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취준생인 딸은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아내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맡겼습니다. 딸은 우리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는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과 용돈을 모았다가 꼭 필요한 선물을 줍니다.

비록 차 사고는 났지만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어 저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어르신들이 강조하셨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Letter 03

퇴근 후 접선

류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5월 9일은 저희의 결혼 21주년 기념일입니다. 저는 이제 막 5학년이 된 일산댁으로 우리 집에는 특이한 '퇴근 루틴'이 있어요.

저보다 30분 일찍 집 앞 역에 도착하는 남편은 역에 도착하면 <모 역 도착~>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위치를 알리고 집 앞 역에 진입하는 지하철에서 <모 역 들어갑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며 접선을 시도하지요.

그러곤 항상 같은 곳에서 접선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점심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퇴근길 지하철에서 앉아 왔는지 아니면 서서 왔는지 등을 물으며 서로 토닥토닥한 후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갑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저희를 보며 말씀하세요.

“어쩔 이 집은 금슬이 이렇게 좋으세요. 부럽네.”

가끔은 접선 장소에서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하염없이 울다가 눈물이 멎으면 손잡고 집으로 가고 눈물이 멎을 것 같지 않은 날은 접선 장소에서 10분은 걸리는 집까지 눈물 바람을 하면서 남편 손을 지팡이 삼고 남편 손수건을 휴지 삼아 울며 갑니다.

이렇게 서럽게 우는 중년 여성과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성 핸드백을 들고 위로하는 아주 순하게 생긴 중년의 남편을 남들이 보면 “저 아저씨, 되게 잘못했나 보다. 쫓쫓. 뭘 얼마나 잘못된 걸까? 바람피우다 부인한테 걸렸나?”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엄청 사랑하는 한 쌍의 원앙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무겁게 집착하는 광기 어린 커플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저희는 같은 아픔을 겪으며 서로 버티고 위로하는 동지입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을 치료하던 16살 딸아이가 심정지 후 식물인간이 된 의료사고를 겪은 후 동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이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온몸에 바늘자국이 가득한 채 150일 넘게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 있는 딸아이를 지키고 아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모두 놓아버리고 싶어 휘청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전우가 되어 서로를 지켜주며 이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이라는 오랜 표현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아기가 아파지고 보니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라는 느낌이 뭔지 알

겠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아이가 홀로 누워 있는 중환자실로 출근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면회를 신청하고 10분 전부터 중환자실 앞에 줄을 서서 1초라도 아이를 먼저 보려고 서성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외부의 감염체라도 옮길까 싶어 마스크도 새로 끼고 손도 비누로 한 번 씻고 들어가면서 소독제로 또 한 번 소독합니다.

20분에서 30분 동안 누워 있는 아이의 손발을 주무르고 얼굴을 쓰다듬고 이런저런 말을 속삭이고 건조해졌을 아이 몸에 로션을 발라주고 너무 바빠 보이는 간호사 선생님께 조심스레 아이 상태를 물어보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나옵니다.

“엄마 갈게. 내일은 아빠랑 같이 올게.”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나오고 몇 번을 뒤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아이를 만나고 만져주면 아이가 의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껏 돈을 올려 유치원 선생님 처럼 말하다가도 힘없이 누워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래도 소용없는 거 알면서...’ 하는 마음이 들면 좀 전까지 신난 목소리를 만들던 이 엄마는 다중이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는 엄마 목소리가 혹시 딸에게 들릴까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다가 나옵니다.

어떤 날은 운 좋게 아이 옆에서 울지 않고 끝까지 씩씩하게 면회하고 돌아오는 병원 셔틀버스 안에서 울기도 합니다. 아이를 면회하고 출근해서 정신없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수시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또래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짧은 교복 치마에 곱게 화장하고 남친 팔짱을 낀 여고생, 누군가의 위로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 갑자기 휴대폰에 뜨는 1년 전 아이 사진, 갑자기 떠오른 아이 생각... 눈물 쏟아질 일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에는 가야 하니까 3호선 지하철에서 어렵게 자리를 차지하고는 강남에서부터 울면서 일산까지 오기도 여러 번입니다.

그렇게 울고 와서는 ‘힘이 있어야 아이를 지킨다’라며 서로에게 밥 먹을 정당한 이유를 강조합니다. 사고 후 입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딸아이를 생각하면 아무 맛도 없는 밥이지만 그래도 우적우적 먹습니다. 마치 무슨 방어전을 치르는 것처럼 밥을 먹어치우고는 ‘내일 또 아이 보러 가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니 자야 한다’라고 우울증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며 잠을 청합니다.

과연 얼마나 지나야 150일 차 울보 엄마는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의식 없는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뇌 손상과 뇌 질환으로 고통 받는 가족을 둔 엄마들, 아빠들, 따님들, 아드님들, 배우자분들! ‘가족의 달’ 5월은 날도 화창하고 쉬는 날도 많아서 더 힘들었을 텐데 버티느라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또 힘내보아요! 아직 넘을 산이 많은 저도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메이트이자 동지인 남편, 우리 힘냅시다! 우리 딸, 우리가 지켜냅시다! 아자아자!

Letter 04

챗지피티를 통해

애청자

20 23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한 수박(태명)이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는 챗지피티입니다. 저희 엄마도 ‘비서를 두고 있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도 챗지피티를 하다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얼마 전 지인이 챗지피티가 사주를 잘 봐준다고 해서 잠이 안 오던 밤, 심심해서 한 번 봤습니다. 제 사주랑 남편 사주를 넣었는데 신기하게도 기질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제가 1년 이상을 거의 24시간 붙어서 키웠는데도 기질이 거의 남편이랑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사주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최근엔 제가 복직을 해서 수박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데요, 얼마 전 어린이집 키즈 노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수박이가 선생님인 저와 화장품 놀이를 즐거워해 얼굴에 톡 톡 두드리며 역할놀이를 즐겁게 했습니다. 수박이가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다가왔는데 수박이가 놀이감을 품 안으로 숨긴 후 제 무릎에 앉아 친구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친구들이 사라지자 다시 선생님 무릎에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 우리 딸내미 진짜 이기적이구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길 했더니 남편이 수박이가 자기랑 너무 똑 닮았다며 놀라더라고요. 남편도 그렇대요.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강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랑 6년을 연애하고 5년을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 그런 성격인지 몰랐거든요. 참 무심하지요. 그동안 제가 남편 물건을 많이 버리고 주변에 나눠주고 툭하면 친구 불러서 같이 놀자 했었는데 남편 입장에선 많이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또 챗지피티에 이런 얘길 해줬더니 아이와 남편의 기질은 내향적이지만 집중력이 있고 정서적 소유감이 강하며 관계보단 안정감 있는 환경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반면 저는 공유와 교류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관계 중심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아이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비사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저와 다른 거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옳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출근길에 낯선 사람이 있는 엘리베이터에 타기 꺼리는 아이를 사람들 방해하면 안 된다고 강제로 끌어서 태우기도 하고 누군가

아이의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면 ‘같이 놀아야지~’ 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제가 쥐버리곤 했거든요. 제 기준이 무조건 옳다고 아이에게 강요했던 거죠.

얼마 전에도 아이가 자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운 날이 있었어요. 제 원칙은 아이가 저녁 8시 30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9시 전에는 잠들어야 해서 우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었습시다. 그때 퇴근한 남편이 아이 방으로 들어와 울고 있던 아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박아~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볼까?”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방마다 돌아다니더군요.

“이것 봐~ 안방에 해님도 자러 갔지? 거실에 토끼도 코 자고 있지? 우리도 이제 자고 내일 또 놀자. 내일은 더 재밌게 놀자~”

그때는 남편을 보며 ‘참 다정하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와 기질이 다른 남편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해주었구나 싶더군요. 모진 엄마의 빈 감성을 따뜻한 아빠가 채워줘서 참 다행이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입니다. 혼자 많이 반성하고 생각도 많아지는 날들이에요.

얼마 전 같은 부서 후배는 덩크족이긴 한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어떠냐고요. 어려운 대답이라 고민하다가 ‘인생의 굴곡이 참 커지더라’ 했습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비교적 컨트롤이 잘 되던 제 인생에 결혼과 출산은 정말 희로애락이 수시로 몰아치는 폭풍우 같거든요. 너무 힘들고 춥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그 끝에 본 햇살은 정말 따뜻하고 예쁩니다. 물론 폭풍우

는 또 오고요. 또 햇살은 그만큼 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가장 공감이 됐던 건 혼자 살던 X축에 결혼하면 Y축이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 Z축이 추가되어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상당히 공대생스러운 표현이고 또 공대생의 감동이긴 합니다만 저는 요즘 정말 혼자만 잘났다고 살던 시절을 돌이켜보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도 자주 합니다.

애 키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깊은 걸 깨달음을 얻은 양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웃기기도 하네요. 근데 결론은 챗지피티와의 대화 덕에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걸 돌아보며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챗지피티 말을 빌리면 사주는 모든 생명이 각각 다른 빛깔을 타고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가꿀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분이 삶을 더 자유롭게 아름답게 완성했으면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주는 본래 단단하고 맑지만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는 외로운 성질이 있는데 절벽 끝에 서 있는 세계 촛불 같은 남편이 작은 빛을 비춰줘서 이제 단단한 땅에 함께 잘 서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 땅 위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Letter 05

머리 하는 날

김숙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2년 만에 파마를 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는 얼마 전부터는 ‘2년’이란 단서를 붙이게 된다. 그 2년은 내가 아프기 시작한 햇수이다.

앞에 언급했던 그 기간 동안은 염색이나 파마가 불가했다. 커트할 때마다 검은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 결국 흰머리만 남게 됐고 항암치료를 위해 삭발했기에 그 후 자란 머리는 흰머리일 수밖에 없다.

‘멋있다. 귀엽다. 작가 같다...’고 지인들은 내 흰머리를 긍정적으로 봐주며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 말에 도취돼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도 깔려 ‘건강이 완전히 허락하면 이대로 가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흰머리는 아직은 잠정적이다.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2년의 기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나에게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병을 앓고 나니 부쩍 나이 든 모습이다. 늙은 나이도 됐지만 나이 든 내 모습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느낌인 것은 사지(死地)를 걷던 2년이라는 세월이 20년 같기도 하고 2주 같기도 해서다. 독감을 앓다가 쾡한 눈으로 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느낌 같기도 하다.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들은 이식을 기점으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난다.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떼는 생활, 3개월, 9개월, 1년을 가장 조심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완치 판정은 차후의 일이다. 조심해야 할 것이 많기에 갓난아기에 비유하는 것 같다.

오늘 파마 하는 일도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감행이다. 화학물질인 파마약이 미칠 영향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 같아 할까 말까 혼자 갈등을 많이 하다가 미용실 의자에 앉았다. 마주 보이는 거울 속의 내가 약간 긴장한 모습이다.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다.

혈소판이 4천으로 바닥을 칠 때마다 절망한 기억은 지금도 아찔하다. 언제 어디서 쓰러져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무리가 없던 병. 면역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타인 공여자도 없고 혈연간 일치도 맞지 않아 아들에게 ‘반일치 골수이식’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롭게 받은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그동안 매사 조심조심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어디 한두 가지였던가. 이제 좀 나아졌다고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이처럼 멋도 내고 싶어진 것이려나. 생명을 다시 얻은 그때를 잊은 건 아닌데 폭 가라앉은 정수리 쪽 머리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여 파마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



이다.

이식을 위해 무균실에 들어가기 전, 내 머리를 밀어준 원장님은 삭발은 보통 앞에서부터 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뒤쪽부터 잘랐다고 한다. 그렇게 내 아픈 마음을 감안했던 그분은 오늘도 조심히 머리를 매만진다. 하얗게 새로 나온 머리는 뻘대서 쉽게 말을 듣지 않아 약을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한때는 ‘이

공간의 좋은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수다도 웃음도 어울림도 세상 정보도 함께 공유하는 미용실 풍경. 뒷담보다는 따뜻한 말이 오가는 이곳은 가위가 전설이 되는 곳이다. 꼼꼼하고 정성 많은 원장님이 운영해서 손님들로 늘 꽉 찬다. 가성비도 좋아서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중화제를 바르고 촌촌하게 감은 로트를 풀고 머리를 감았다.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했다. 다듬고 드라이어로 앞머리를 다듬어 주니 거울 앞에 푸들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원장님도 나도 만족스러운 눈빛이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던 광고가 떠오른다. 나 자신을 위해 멋 좀 내고 변화하는 모습이 무슨 죄가 되랴. ‘늙을수록 화려해지랴’라는 말도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위로 같아 마음에 든다.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잠깐이나마 내가 아꼈던 사람임을 잊고 자유로워졌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행복은 거창한 것도 아니건만 왜 들고 돌아서 깨닫는지. 2년 만의 변신이 만족스러워 발걸음이 가볍다. 셀카를 찍어 여동생들과 딸과 아들, 며느리에게 전송했다.

<예전 어머니님 머리 모양은 귀여운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적이세요. 인자한 강남 사모님 같아요.>

며느리의 답이 나를 기분 좋게 한다.

2년 만의 변신은 성공한 것 같은데 파마를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기를 또 걱정하고 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생기 있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 누군가 “더 노인네 같아!”라는 소리를 해서 산통 깨는 일은 없기를!

Letter 06

나를 안아준다

박미애 | 경남 밀양시 산외면

8년 전 52살에 매달 치러야 하는 일이 멈춰 산부인과에 갔다. 예상대로 의사는 폐경이며 갱년기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사람 심리가 우스운 것이 그 말을 듣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란한 마음과 여자로서 끝인가 하는 우울함이 밀려왔다.

그 후 서서히 갱년기 증세가 나타났다. 무엇을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매일 설사를 했다. 나중에는 건더기가 있는 음식은 넘기지 못했고 내과에서 위와 장 내시경을 했는데 위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위염이 조금 있고 장은 깨끗하단다.

이 시기에 내 소유 모델 세입자와 분쟁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 어느 부분이 크게 힘든 적은 없는데 갱년기 영향이 컸나 보다. 나 역시 장사를 하고 있어 죽을 먹으면서 일했다.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5kg이 빠져 바지 허리가

느슨해졌다.

몇 달간 세입자와 다툼 끝에 세입자가 이사 가자 그 뒤부터는 음식은 먹을 수 있었다. 이어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어지럽고 피부는 심하게 당겼다. 몸속에 나쁜 무언가가 돌아다니면서 내 몸 구석구석을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것 같고 온몸의 영양분과 기가 다 빠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은 허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어졌다. 의욕이 사그라지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나 후회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고 다짐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세입자가 나간 모텔은 직접 운영했다. 난방을 해야 하는데 초겨울이라 밤새 보일러를 틀 수 없어서 밤에 몇 시부터 틀고 새벽에 몇 시에 꺼야 하는지 경험이 없으니 두 달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심야와 새벽에 수시로 일어났더니 불면증이 생겼다. 배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던 나로서는 잠에 대해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 5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씩 자고 일어났더니 면역성이 떨어져 몸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들락거렸다.

몸은 민감해져 늘 긴장 상태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났다.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 잠은 약기운으로 잤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나 화가 나는 날에는 약을 먹어도 잠을 자지 못했다.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고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손에 무언가 잡히는 대로 던졌다. 화가 나는 사이사이에 이성이 살아나 '이러다 내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졌지만 화를 멈출 수는 없었다.

불면증과 모텔 청소로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었다. 통증이 더해

진 불면에는 신경안정제도 소용없었다.

몇 날 며칠을 통증과 함께 까만 밤이 하얗질 때까지 뜯 눈으로 보내고 나니 우울증이 왔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과 통증 없는 편안한 저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 내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후회와 외로움, 공허함에 스스로 삶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또한 삶이라 해 뜨면 다시 일을 하고 빨리 낫고 싶어 병원 치료와 운동을 하니 허리디스크는 나아졌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가슴속에 화가 가득 차 조그만 일에도 민감해지고 화가 났다. 이대로 계속 놔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슴속에 가득 찬 무거운 덩어리를 글로 끄집어내기로 했다.

글쓰기 모임에 나갔다. 하나씩 하나씩 속의 것을 꺼내 되는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7살에 부모님 여의고 13살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외삼촌 집에 살다가 15살부터 혼자 살아온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오직 일만 하며 살았고 주위를 의식하며 살았다. 잘못된 것에 자책하고 후회했지만 잘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나를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나의 힘듦을 내가 보듬어 주고 싶었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나를 내가 위로해 주고 싶었다.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줘서 고마웠다고 너는 정말 대단하다고 잘 살아왔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내가 나를 안아 주었다.

얼마 전, 나의 20대를 모르는 동생들과 가진 모임에서 “언니

는 웨딩드레스를 입어 보지 않아서 후회 안 돼?” 하는 질문을 받았다.

“나, 29살에 입었어.”

“음, 그랬구나. 언제 헤어졌어?”

“15일 결혼생활! 사기 결혼!”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들도 흘리듯 듣고는 다른 대화로 이어 갔다. 사실 너무나 큰 상처라 그동안 말한 적 없었다. 청혼한 남자에게는 말했지만 그 말을 하고 나면 상처가 되 살아났고 상대도 힘들어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여유가 생겼다. 웬만큼 사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면증은 여전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경안정제를 최소한의 4/1만 먹고 있다.

여전히 나는 습관대로 아침 6시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세끼 밥 챙겨 먹고 운동하고 책 읽고 바쁘게 산다. 나를 위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한다. 시골 모텔을 둘러싼 주위 산과 들과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자연을 매일 보게 해준 모든 신께 감사하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도와준 모든 이에게도 감사하다.

지금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모텔을 내놓았다. 모텔이 팔리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싶다. 불면증도 서서히 사라질 거라 믿는다.

Letter 07

마라톤 한 번 더 해볼까요

정한성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친 구 영식이와 저는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초당산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몸무게가 92kg 넘는 거구였던 이 친구는 맨발로 걷기보다는 제자리에서 뛰기를 매일 해서 무려 12kg을 감량했습니다. 저는 영식이에게 ‘초당산의 산신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초당산에서 맨발 걷기하면서 이 별명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시내 곳곳에 걸린 ‘유달산 마라톤 대회’ 현수막을 보았어요. 불현듯 예전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과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참가했고 친구들이나 아내와 함께 10km도 여러 차례 뛰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영식이한테 마라톤 대회에 같이 참가하자고 했더니 선뜻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 친구의 몸이 이제 80kg로 엄청 가벼워졌고 매일



제자리 뛰기를 열심히 해서 근력을 길렀으니 조금만 연습하면 한 시간 안에 10km는 충분히 완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달산 마라톤 대회에 있는 하프, 10km, 5km 이 세 종목 가운데 10km 코스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영식은 난생처음 10km에 도전하는 거죠.

누군가 ‘인생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일’이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자칫 무미건조한 삶이 되기 쉬운데 마라톤처럼 특별한 일을 한 번씩 하면 삶에 활력소

가 되잖아요.

친구와 저는 더 늙기 전에 60대 중반에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곧잘 인용합니다. 그 준비를 위해 저는 친구에게 말했죠. 제자리에서 뛰는 것과 달리는 것은 쓰는 근육이 다르니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우리는 영산강 하구언에 있는 자전거 도로 부근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 일단 5km를 달렸는데 친구가 의외로 잘 달렸어요. 저는 숨차서 헉헉거리는데 친구는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쉽게 달렸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친구라 역시 다르더라고요. 5km를 28분 37초에 달렸으니 기록도 무척 좋은 편이죠.

우리는 10km를 시속 10km의 속도로 달려 60분 안에 완주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6분에 1km를 달리면 60분이면 10km에 도달할 수 있으니 그리 어려운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중반의 나이에 80kg이 넘는 체중이라 절대 쉽지도 않은 목표입니다.

더구나 어느 통계를 보니 10km를 20대는 평균 45분에서 50분 사이에 30대는 50분에서 55분 사이에 40대는 55분에서 60분 사이에 달린다고 나와 있어요. 60대는 그 통계에 나와 있지도 않고 40대처럼 달려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 만만치 않은 도전인 거죠.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지 않기 위해 며칠 후에 다시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6km를 달렸고 그다음에는 8.06km를 달렸습니다. 연습 기록은 42분 15초가 나왔습니다. 계산상 8km면 48분 정도가 걸릴 텐데 42분대에 달렸으니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다 싶

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둘이 연습하는 곳은 평지인데 마라톤 대회 코스에는 경사진 비탈이 여러 군데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경사가 있는 부주산으로 가서 적응 훈련도 했습니다. 연습하다 보니 다리에 단단한 근육이 생기고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대회 2주일 전부터는 좋아하는 막걸리도 톡 끊었습니다. 우리의 각오는 그만큼 비장했습니다.

10km를 저와 여러 번 같이 달린 아내는 ‘겨우 10km 달리면서 너무 요란스럽다’라고 핀잔 같은 응원을 해주었고, 초당산에서 맨발 걷기를 같이 하는 분들과 친구들도 ‘멋지게 완주하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4월 6일 ‘2025 목포 유달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하기에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지 마라토너들 얼굴이 환하게 밝았고 달리는 참가자들의 연녹색 티셔츠는 도로를 생동감 있게 했습니다. 마라토너들은 각자 특유의 폼으로 달립니다. 어떤 러너는 나비가 춤추듯 사뻐사뻐 달리고 어떤 사람은 지구를 등에 업고 달리는 것처럼 몹시 힘들어합니다.

우리 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경사진 곳에서는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완주했습니다. 기록은 10km 58분 08초! 성공입니다. 목표로 했던 60분보다 1분 52초가량 먼저 들어왔습니다.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 같은 강렬한 기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같이 뛰는 영식이 저보다 04초 빠른 기록으로 들어와 더 기뻐요. 우리는 기어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우리는 완주 기념 메달을 받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목포’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 글자를 보니 목포에 대한 애향심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에 행복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영식아! 오늘 수고 많이 했다. 오늘 멋져부렀다!”

“응, 너도 수고 많이 했다. 혼자 하면 힘들었을 텐데 같이 하니 이런 좋은 기록이 나온 것 같아야. 고맙다, 함께 뛰여주어서! 오늘 기분 짜진다!”

“그래 나도 너와 함께 멋진 추억 만들어서 참 좋다. 오늘 그동안 마시지 못한 막걸리 진탕 마셔 불자!”

우리는 저녁에 다시 만나 그동안 못 마신 막걸리를 보충했습니다. 2주일을 참다가 마신 막걸리 맛이 얼마나 달달하던지요.

이렇게 65세의 나이에 작은 추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추억이 우리 둘에게는 정말 큰 추억일 수 있습니다. 물론 80대에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는 강철같은 분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겠지만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달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무릎이나 허리가 고장 날 수 있는 나이에 만든 추억이니 감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군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할까 합니다. 힘들면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 될 것이고 마라톤 끝나고 그 지역 맛집과 유적지를 찾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초당산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초당산 산신령님, 마라톤 대회에 또 나가 볼까요?”

아마 산신령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백 번이라도 나가야제!”

Letter 08

깊은 잠에 빠진 딸

이우완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저는 부산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이 최고라 느끼며 살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딸 두 자녀를 두었으며 자식들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히 저희 딸은 직장 생활로 인천에서 가정을 꾸린 오빠를 대신해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신혼집을 얻어 친정 가까이에서 엄마, 아빠를 살뜰히 챙기는 똑 부러지고 야무진 착한 아이입니다.

딸은 사위와 사이가 좋고 서로에게 다정한 부부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 1년을 보내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입덧 한번 한 적 없이 컨디션이 좋았던 딸은 만삭까지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직장 생활도 하고 아내와 산책도 열심히 다니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아기 태어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에 마음 설레었습니다. 것처럼 행복할 날만 계속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작년 11월 19일 아이를 출산한 후 몇 시간 되지 않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고 태어난 아이를 안아 보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뒤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겼고 5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은 힘들 것 같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6개월 동안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출산 당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난 후 부모님과 남편이 힘들까 봐 웃으며 “빨리 집에 가라”고 인사한 일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동공 반응이 없는 상태이며 코로 미음을 넣어주고 자가 호흡 없이 산소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살아있는지 다리나 어깨를 주물러주면 반사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 병원에서 뇌사 판정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딸아이의 몸이 굳지 않도록 매일 두 번 허용되는 면회 시간 30분 동안 아내와 사위와 함께 딸의 몸을 주물러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귀에 대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윤아, 엄마 아빠 왔어. 얼른 일어나서 아기 안아봐야지.”

짧은 30분은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또다시 하루가 무너집니다.

평소 강단 있고 마음이 단단한 사위는 말은 하진 않아도 아내

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면회 때마다 고스란히 느껴져 안 쓰렵습니다. 사위는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힘겹게 태어난 손녀딸은 엄마 품이 어쩔지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첫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모두가 기뻐해야 할 그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끝도 없는 고통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 모두 모든 걸 놓고 싶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딸아이의 중환자실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또 일터로 향합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이제 겨우 태어난 손녀딸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일찌감치 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손녀딸은 엄마의 품도 따뜻한 손길도 모른 채 너무 이른 외로움과 결핌을 견디고 있습니다.

제 딸은 참 밝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기다렸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해 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차가운 병실에 누워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사고가 하필 내 딸에게 났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하루 더 빨리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했는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무엇이든 닦하고만 싶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요. 엄마 없이 자라는 손녀가 엄마 품에 안겨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

기름요. 예쁘고 착한 우리 딸이 정신 차리고 제발 일어나기름요. 딸이 병상에서 일어나 주기만 한다면 저의 힘이 닿는 한 저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딸과 손녀딸을 모두 보살필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안타까워할 만큼 딸의 상황은 뇌출혈 중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뇌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진물이 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그 후에 진행이 가능한 검사라도 할 텐데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이 계속해서 치료만 하는 상황입니다. 의학계에서도 흔치 않은 이 상황에 대해 더 나은 치료 방법이나 회복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떠한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딸이 다시 깨어나 아기를 안을 수 있도록 많은 분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사랑하는 내 딸 지윤아, 꼭 일어날 수 있지?
 엄마, 아빠는 믿고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내 딸, 힘내자! 잠에서 깨어나자!
 조하서 엄마야, 힘내자!
 우리 딸, 할 수 있다! 해서 엄마는 이길 수 있다!
 손잡고 같이 걸을 수 있기 바란다.
 기적은 온다. 믿고 기다린다.
 사랑해. 힘내보자!”

Letter 09

나의 이웃들

장옥진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길

매 일 운전하면서 여성시대를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공감하고 감동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지요. 두 분이 사연을 참 생동감 있게 잘 읽어주고 들어주셔서 나도 사연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사십 대 후반이 된 아줌마예요.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한반도가 막혀 있지 않다면 KTX를 타고 서울에서 회령까지 3시간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길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고 돌아 2007년 30살이 되었을 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든지요. 마침 5월이라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있고 초록색의 가로수들을 보며 달리다 보니 내가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들떠있었지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고 억양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꾸 “고향이 어디냐?” 물어서 난감했지요. 고향을 떠올리면 아픈 기억이 많아서 숨기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었지요. 시간이 오래되어도 억양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둘째 딸을 임신하고 한국에 와서 4개월 만에 출산했어요. 부산에서 12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를 받고 더 이상 배고파서 죽는 일이 없는 세상에 왔다는 것이 너무 벅차도록 행복하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젓먹이 딸아이가 잠들 때마다 잠투정하며 울었거든요. 그때마다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주의를 주셨어요.

“애기엄마,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애 좀 울리지 마요.”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이 없어서 출입문을 조금 열어두니 애 우는 소리가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나는 할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 음식을 해서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고 할머니께서도 과일이나 먹을 것이 생기면 챙겨주셨어요.

“애기엄마, 저번에 갖다준 부추 속 넣은 만두 있잖아. 그걸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던데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

우리 함께 부추 만두 만들기도 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졌지요. 그때 할머니가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다 울면서 크는 거지. 나는 괜찮으니까 애를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뒹요.”

그때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곁에 좋은 이웃이 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배고픈 걱정을 해결하고 나니 특별한 꿈이 생겼어요. 북한에서 아버지가 식량난으로 힘든 중에 병에 걸렸는데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해서 자꾸 눈물만 나요.

북한은 모든 땅과 기업, 주택까지 전부 국가 소유예요. 무상교육, 무상치료라고 하지만 병원은 건물만 있고 모든 의료품을 개인이 시장에서 사 와야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약을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영양실조 상태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돌면 때로 죽어 나가는 거지요. 북한 주민들 모두 그렇게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목숨을 잃었어요. 한국에서는 병도 아닌 작은 질병으로 그냥 힘없이 죽어갔지요.

나는 한국의 의료를 경험하면서 언젠가 통일의 길이 열리면 북한 주민들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를 위해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당장 간호학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대학에서 집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이나 걸렸어요.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첫 수업을 들으려면 집에서 오전 7시에는 출발해야 했는데 아이 유치원은 아무리 일찍 가도 8시가 넘어야 문을 열었지요. 운전면허를 따야겠다고 싶었어요.

북한에는 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내가 운전할 일이 더더욱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 차들도 많고 썩썩 달리는 차들이 무서웠어요. 그 속에서 내가 운전하는 건 거의 기적이다 싶었지요. 하지만 이

미 내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 차례 불합격 끝에 운전면허를 따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까지 겨우 운전해서 도착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집에 돌아올 때는 차를 그냥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요. 얼마나 용을 썼는지 차가 벼랑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바닷 속에 처박히는 꿈을 거의 매일 꿰어요.

어느 날은 급히 학교에 가느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있는 새 차를 긁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주인을 찾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던 장애인 부부의 차였는데 남편분은 소아마비였고 부인은 약간의 지적장애를 가졌지만 선한 인상에 힘도 세서 남편의 휠체어를 차로 번쩍 들어서 옮기곤 했어요. 그 아내 분은 굵은 차를 보더니 남편과 상의한다며 다시 올라갔어요.

얼마나 보상을 해달라고 할지 걱정도 되고 처음 낸 사고라 겁도 나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부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아내 분이 와서 “남편이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됐다고. 이웃끼리 살다 보면 사소한 사고는 날 수 있다고 그냥 가시래요” 말합니다.

그 모습에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다녀와서 과일을 사서 현금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그 부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거든요. 반갑게 문을 열어주는 아내 분에게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가니 아저씨는 몹시 힘든 자세로 누워 계셨어요. 나는 먼저 내 소개를 하고 죄송하다며 과일과 돈봉투를 내밀었지만 두 분은 극구 사양하며 과일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최대한 몸을 틀어 나를 바라보며 대화하려고



애쓰셨고 누워서 손님을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힘든 곳에서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한국에 너무 잘 왔다며 나를 위로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애를 가지지 못하

지만 애를 너무 좋아해요. 가끔씩 애랑 함께 놀러오세요”라며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조용히 주변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 부부를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아주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을 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나도 저분들처럼 걸보다는 속이 멋진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지요.

이후로도 내가 학교 공부로 바쁠 때마다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어떤 날은 삼계탕 먹는 날이라며 직접 끓인 음식을 가져와 저와 아이들을 먹이고 제가 없는 사이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가신 날도 많았어요. 그런 고마운 손길 덕분에 어느샌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꿈을 이뤘고 이사를 하게 됐고 아이들도 커서 어느덧 이제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보고 싶은 나의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늘 안부 물어주고 도와주셨던 형사님, 대학 공부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며 응원해 주고 도와주셨던 교수님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아동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집에 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돌봐주셨던 나의 고마운 이웃들, 모두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의 힘으로 나는 수많은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었고 이제는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기를 그래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없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고마운 나의 이웃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Letter 10

입양 사랑이 시작된 날

강동완 | 경남 거창군 거창읍

20 14년 겨울, 바람이 찬 날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생후 여섯 달 된 쌍둥이 아기들을 처음 품에 안던 순간이었지요.

저희 부부에게 오랫동안 품어온 조용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양’ 가슴 깊이 간직했던 소망이 그날 눈부신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40대 중반에 귀농을 결심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마음속에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입양은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고요하고 서로를 품어 안는 따뜻한 시간이 되어 우리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16살, 둘째는 13살이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을 조심스레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두 아들은 사춘기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의는 어떤 말보다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 딸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두 아들도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비 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고요한 새벽,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딸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계맛살을 꺼내 반으로 자르고 나무 꼬치에 꽂아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서툰 손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단단했습니다. 달걀을 풀어 맛살로 만든 하트 안에 천천히 흘러 넣고 약한 불에 조심스레 굽는 동안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진짜 예뻐! 맛있어!”

그 한마디면 하루의 고단함도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입양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웃고 울며 어느새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28살이 된 큰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입양하고 싶어.”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망설임 없이 “좋아”라고 대답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고요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양이라는 사랑의 씨앗이 우리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싹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한없는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가족이 되는 길은 꼭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아도 진심이 닿으면 마음은 언제나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고 작은 하트를 정성껏 빚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랑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들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 환하고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입양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마음이 필요한 아주 따뜻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한 가정(1)이 한 명의 아이(1)를 입양해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담아 5월 11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묵묵히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신지야, 신혜야

아빠는 너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우리에게 와줘서 참 고마워.

Letter 11

미평 학교에서 온 편지

김샘

저는 미평여자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김샘입니다. 미평여자학교는 사회에서 격리된 여자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인데 이 학교에 오는 청소년들은 폭력 사건,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위탁소에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로부터 보호, 관심,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보호위원으로서 교육 멘토링 활동을 한 지 9년째입니다. 저와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미평여자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마음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며칠 전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좋아서 여성시대에 글을 올려 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직접 써서 보낸 편지도 사진으로 함께 보냅니다.

<봄 같은 보호위원님께 >

안녕하세요. 위원님! 5월의 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미평의 한 학생입니다. 벌써 2025년의 반이 다 되어 가는 중이네요. 요즘 날씨는 덥다가 춥다가 시원하다가 참 변덕쟁이예요. 그래도 학교 앞 만개한 꽃을 보면 식물들의 계절이 오긴 했구나 싶습니다.

위원님의 5월은 저기 벚꽃처럼 안녕하신지요? 소년원은 조금 신기한 곳이에요. 처음엔 겨울처럼 춥고 외로운 시간을 안겨주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따뜻한 손길이 다가와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줘요. 따뜻한 온기를 가진 주인공은 역시 선생님들과 보호위원님들의 선물들이겠지요?

당연히 이곳에서 너무 행복하진 못하더라도 우연히 발견한 작고 소소한 감사와 행복 덕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제 마음속엔 언제나 꽃이 피어요. 때로는 시들기도 하지만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강한 아이랍니다.

제 꽃은 단순한 아이예요.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을 봐도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만나도 선생님들의 관심과 칭찬에도 꽃잎을 활짝 열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꽃잎으로 변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웃프지만 간식 먹을 때예요. 제가 워낙 단 걸 좋아해서 사회에 있을 때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간식을 많이 못 먹게 되잖아요. 새삼 간식이 소중한지더라고요.

보호위원님들께서 늘 보내주시는 간식 덕분에 저는 오늘도 웃으며 수업을 들었어요.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영광이네요. 우울한 겨울 같은 제 기분을 녹여주는 건 역시 간식이 최고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밤입니다.

글을 조금 읽어보시니 ‘봄’이라는 수식어가 이해되시나요? 제가 표현이 서툴러 ‘미평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을 어떤 말로 수식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여 고른 단어예요.

전 봄을 그리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예요. 오히려 겨울의 쓸쓸함에 위로를 받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미평에서 만난 봄은 제 생각보다 훨씬 찬란했어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푸르른 풀과 눈부신 햇살, 형형색색의 꽃들, 처음으로 벚꽃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되었어요.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제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감사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쓰고 보니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이 편지가 얼마나 힘이 되실진 모르겠으나 보호위원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작은 에너지가 되셨으면 해 편지를 썼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혹시 나중에라도 시간 내셔서 미평에 오시게 되면 제빵반에도 들려주세요. 정성 가득 담긴 빵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Letter 12

아들 걱정

김윤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비가 계속 오네요. 출근길을 걱정하며 나섰는데 때마침 우산 없이 출근하는 예쁜 사람이 보여 내 우산을 건넸습니다. 한 건물에 거주해도 몇 번이나 보았을까마는 스무 살 무렵의 나를 보는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써요.”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그의 등을 살짝 도닥이며 헤어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아들과 남편이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싣고 있어서 옆문으로 비닐을 밀어 넣었습니다. 혹여라도 납품할 물건이 젖을까 봐 덮으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출발합니다. 돌아보니 수건을 못 챙겨주었네요. 어휴~ 가슴 한편이 미어집니다. 아들은 오늘 일정에 헉헉대며 비에 젖은

생쥐가 되어 머리카락도 이마에 찰싹 붙을 것이고 안경에는 김서림이 생기고 물방울이 잔뜩 달라붙겠지요. 그 상상을 하니 엄마인 저는 울게 됩니다. 정작 아들은 다 커서 열심히 일하는데 엄마인 나는 아직도 커가는 중인가 봅니다. 아들도 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숙해 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일할 때도 걱정은 당연하지만 아들이 일하니 걱정은 1.5배 더 커집니다.

어제는 내 몸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나기에 ‘비가 오겠구나’ 했어요. 내 몸은 언제부턴가 기상청 일기 예보관이 되었습니다. 눈앞도 뿌예지고 손목을 비롯한 몸 곳곳에서 “여 아파. 여도, 여도~” 하는 곡소리가 애달픕니다. 그러니 신경통은 평생 같이 갈 친구가 되었고 손목과 무릎에 파스를 부치고 종아리에는 소염진통제 스프레이를 샹샹 펌프질합니다. 나는 냄새가 좋은데 다른 이들의 후각을 후벼 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폐녀가 되다니 팬스레 쓸쓸해져 뒤로 물러납니다.

빗소리가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도 한 번도 유심히 관찰한 적 없는데 아들 걱정으로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가게 문도 못 닫고 가게 어닝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듣다 보니 그렇더군요. 간사한 나는 예전에는 비를 좋아하는 소녀였고 아줌마가 되어도 비가 오면 커피 들고 음유시인인 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다 접어두고 멀뚱멀뚱 밖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며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한 일과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을 생각해 봅니다. 택배, 음식 배달, 이사 차량, 청소하는 분들, 우체부 아저씨들, 물건 납품 차량 등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겸허히 존중하게 됩니다.

소란한 빗소리 속에 누군가는 우산을 쓰고 지나갑니다. 가게 안

이 음습하여 전기장판을 켜고 앉아 다시 아들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죽을 만큼 힘든 일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했지만 자식에게는 절대로 대물림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자식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여서 속을 밖으로 드러내우는 찢순이인데 남편은 아버지여서 무뎛뎛한 얼굴이지만 마음이 온몸에 묻어납니다. 말이 없고 눈물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오늘 하루도 잘 납품하고 무탈하게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빗방울이 방울방울 예쁘게 떠내려가며 노래하는군요. 휴대폰 문자가 올립니다. 아들 톡입니다.

<기름값 84,000원!> 아들 문자에 나는 100,000원을 보냅니다. <6,000원 꿀꺽!> 아들한테 답이 오는군요.

저도 비로소 웃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처가 무사히 끝났구나!’ 안심합니다.

청소업체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해갑니다. 연둛빛 우비를 입은 청소부들과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택배 아저씨도 목에 수건을 걸치고 뛰기에 바쁩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각자 다들 열심히입니다.

아들의 차가 들어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물에 젖은 생쥐’입니다. 나는 수건을 들고 나갑니다.

“애꿎다~”

“에이, 괜찮아~”

아들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탈탈 털고 젖은 신발에 신문을 구겨 넣습니다. 아들 등을 토닥여주었습니다. 비도 오고 하니 뼈다귀 감자탕에 소주 한잔하면서 볶음밥으로 일과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달의 손편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차혜진 | 강원도 평창읍

“뭔데 그렇게 재있어?”

넷째를 재우고 난 늦은 밤, 아기가 깰까봐 이불 속에 들어가 핸드폰 불빛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웃음을 못 참고 소리 내어 웃고 있는 나에게 남편이 묻는다.

“물라도 돼. 어차피 얘기해줘도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라, 같이 웃지도 못해.”

남편이 궁금해하는 캐팅방은 나를 포함한 5자매가 있는 캐팅방인데,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아주 사사콜콜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사실 우리 자매는 그 어떤 자매들보다도 끈끈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 “대한민국! 배뱀뱀 밤뱀!” 월드컵의 열기로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2002년 여름은 우리 5자매 모두에게 너무나 서글프고 시린 여름으로 남아있다.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다섯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짙소목길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우리 다섯 자매는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그 날 오후, 중3이었던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컴퓨터 학원에 있었는데 엄마와 친한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가 좀 다쳤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학원차를 타고 급히 병원에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 다 와있나
싶을 정도로 병원 주차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묻는 나에게, 동네 아주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이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찌냐는 말만 반복했다.
엄마는 다친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아빠가 다른집 농사일을 도우러 간 사이, 엄마 혼자 100kg도
넘는 소머리를 옮기다가, 쌓아놓았던 짚더미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그 밑에 그대로 깔리셨다.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찬참 후에
커가한 할아버지와 7살 막냇동생이 발견했다고 한다.

남색 장화 신은 다리만 보이는 …….

그렇게 우리 엄마는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7살부터 고3까지
다섯명의 딸을 낳겨두고,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그야말로
허망하게 가셨다.

그라는 사이, 언니는 대학교 진학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고,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나와 동생들은 집안일과 농사일,
목장일까지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가 된 나는 야간자율학습도 빼고 집으로
오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남색 장화를 신은 다음, 군데 군데 녹이

손 삽으로 소똥을 차웠다. 처음에는 소똥이 얼굴에, 옷에 수없이 튀었지만, 어느 덧 수레에 착착 퍼 담아 쏟아내는 것까지 제법 능숙해졌다. 동생들은 자기 팔뚝보다 더큰 쫓병으로 송아지에게 우유도 먹이고, 그 작은 손으로 바가지를 들고 사료를 퍼 주기도 했다. 어떤 때는 엄마가 사료를 당한 그 자리에서 나와 동생들이 같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었지만,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그늘 아래,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냇동생은 밥 지을 때 더이상 고들밥을 하지 않게 되었고, 첫째 동생은 찬소의 달인이, 둘째 동생은 감자탕까지 집에서 끓이는 요리 고수가 되어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셨고, 나는 늘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책을 베개 삼아 잠이 들곤 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막냇동생조차 엄마가 보고 싶다면 운 짝이 없고, 다른 자매들 역시 슬프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내색도 하지 않았다. 모두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 잘한다, 고맙다,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서로 의지가 되는 존재임을 조금씩 확인해나갔다. 그 후, 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135,000원을 받았고, 나는 그 돈으로 자전거를 한 대 샀다. 그리고 대학 4년 내내 그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식당 아르바이트와 교외를 했다. 주말이나 방학 때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면, 밤 10시에 툽툽 부은 두 발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겁에 가기도 했다.

동생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대전스러울 때가 많았다. 내가 번 돈으로 옷이나 운동화를 사서 보내주면, 초등학생인 막냇동생은 늘 이렇게 말했다. 자가가 크면 꼭 언니한테도 효도할거라고.

그렇게 생활비를 벌며 대학교를 졸업했고, 오랜 시간 간직했던 내 꿈을 이뤘다. 그리고 발령을 받던 해에 결혼을 해서 10여년 동안 4명의 아들을 낳아 단란한 가정도 꾸렸다. 나는 결혼을 할 때도, 4번의 임신을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자매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요즘 우리 채팅방은 육아 채팅방으로 바뀌었다. 사실 첫째 동생과 둘째 동생이 임신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내가 넷째를 임신하고 나서 두 동생 모두 임신이 되어, 지금 비슷한 포레의 아기들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채팅방에는 아기 조카들 사진으로 넘쳐나고, 각종 정보들로 가득하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엄마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흐릿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남겨준 가신 것 같다. 요즘 나의 4명의 아들들은 투닥투닥 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우리 5자매처럼 늘 함께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5자매! 항상 나의 율타리가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자!



여성시대 사진방



[2081] 부모님이 마늘을 뽑아 놓으셔서 저희 오 남매가 어머니 생신날 모여 크기별로 나누는 작업을 했어요.



[8634] 월간 여성시대가 받고 싶어 치과 치료를 10일로 정해 치과 가는 길에 책을 받아옵니다.



[3535] 따뜻한 고향의 정이 넘치는 상주 오일장입니다.



[1803] 오늘은 외국 사람 12명이 와서 사과 적과 작과 작업해요. 일손 모자라는 농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9055] 여성시대 50주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서울 강남구 도곡2동의

여성시대 가족 김용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올해로 아흔 살이 되신 저희 어머니는

걷는 것도 힘들고,
귀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노쇠하셨습니다만
책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2주에 한 번은 시내 서점에 나가
신간을 고르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지요.



지난달의 일입니다.

근래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시내 서점 나들이를 간지 한참이었던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동성로 서점에 나가
책을 한 권 사 오셨습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인지
동성로에선 족제가 한창이었지요.



인산인해로 발디디를 톰도 없는 그곳에서
혹여나 다치기라도 할까 급히 택시를 잡으려는데
택시가 잡히질 않아 애를 먹고 있던 중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부탁을 했더랍니다.

선생님 나 집에 가야 하는데
택시 좀 잡아줄 수 없을까요?



예 할머니
제 손잡고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엄마의 말에 청년은
선뜻 손을 잡고 택시를 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지나 가까스로 택시를 잡고
엄마는 고마운 마음에 호주머니에서
돈 3만 원을 꺼내 청년에게 주려 하니
극구 사양하던 청년.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의 고집도 보통은 아니었기에
억지로 청년의 주머니에 3만 원을 찔러 넣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답니다.

근데 애
택시 내리려고 하니
택시비가 이미
지불이 됐다고 하데?



아마 그 청년이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는 모양이다.
그러면 선결제가 되거든.



그리고 주머니를 보니 기어코는
내 주머니에 그 3만 원을
다시 넣어놨더라.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고마운 청년들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몰라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이렇게나마 편지를 띄워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K-섬유를 세계에 알리다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 거래고객
(주)에스케이텍스 정현분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과거 대한민국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었던 섬유산업이 점점 기울면서

현재는 사양 산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여성 의류용 원단 생산 기업 (주)에스케이텍스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에스케이텍스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전문으로 하는 섬유 제조회사다. 2000년 설립되어 블라우스, 튜닉, 셔츠, 스커트, 드레스, 정장, 코트 등 다양한 여성 의류용 원단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2천만 미터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생산량의 90%를 유럽, 미국,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1년에 반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을 자리가 없을 정

도에요. 매년 뉴욕, 파리, 상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섬유 전시회가 열리고 그 밖에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섬유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원단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홍보의 장이자, 직접적으로 계약도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작은 업체지만 품질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직접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박람회에 꼭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현분 대표는 1980년대 대한민국 섬유 중심지였던 대구의 섬유기계 부품회사에서 일하다가 에스케이텍스를 창업했다. IMF 이전에는 대구 기업 중 90%가 섬유 기업이었고 항상 호황이었기 때문에 창업하려고 했을 때 섬유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당시 일본에서 들어온 사무스 원단이 인기를 끈 것도 한몫했다. 실크는 예쁘고 고급스럽지만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많은 사람이 애용하기 힘든 원단이었는데 사무스는 손으로 빨 수 있는 실크로 알려져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

던 시기였다. 덕분에 창업 초기 호황을 이뤘지만 그 시기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스케이텍스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전문으로 하는데 국내에서 폴리의 인기가 점점 식고 있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정현분 대표는 세계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았다.

되돌아보면 창업 초기부터 고비가 많았다. 섬유 공장을 차리면서 초기 세팅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원단을 팔기 전에 샘플을 만들고 바이어에게 컨펌받아 납품한 뒤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금 기간이



5개월 이상 걸려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았다. 게다가 2003년 태풍 매미에 직격탄을 맞아 기계와 원단이 몽땅 망가져서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장 인근에 큰불이 났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 공장 근처까지 불이 번질까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런 고난 속에서 에스케이텍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3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기술자들과 함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2015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에 이어 작년에는 섬유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해외는 국내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밤낮없이 전화가 옵니다. 밤에 자다가도 바이어에게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노트북을 켭니다. 저희 에스케이텍스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바로 날아가 발로 뛰며 고객을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새로



은 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 박준범 지점장은 “에스케이텍스는 세계 각지의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 수출 시장을 확보하며 대한민국 섬유 산

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2016년 천만불 수출탑을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백억 이상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는 에스케이텍스가 세계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 박준범 지점장(왼쪽)과 (주)에스케이텍스 정현분 대표

❶ (주)에스케이텍스 정현분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라.
2. 품질로 승부하라.
3. 언제나 어디서나 즉시 고객들에게 응답하라.

(주)에스케이텍스

대 표 정현분

전 화 053-616-0152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91길 74-12

홈페이지 <http://skttx.net>



원스톱 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다



IBK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 거래고객

퀸스산부인과 이항재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대부분의 병원에는 환자들의 고통과 근심, 아픔이 가득하지만

유일하게 산부인과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다.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2014년 개원한 퀸스산부인과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수많은 가족의 축복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퀸스산부인과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종합 의료기관으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 동문인 이항재, 서기원, 정성윤, 송은석 원장이 함께 개원하였다. 개원 전 모두 다른 지역에서 소규모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련 진료를 함께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응급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뜻을 모아 함

께 병원을 설립하였다.

퀸스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외에도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을 연계 운영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번거로운 접수 절차를 줄이고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책임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부인과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몸조리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당뇨, 혈압, 갑상선 질환 등 각종 내과 질환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적자가 계속되지만 산모와 아기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퀸스산부인과가 개원했을 당시

에는 주변에 소규모 산부인과가 다수 있었으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는 대부분 문을 닫았다. 산부인과 운영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증거다. 하지만 퀸스산부인과 의료진들은 새로 태어나는 생명과 기뻐하는 가족들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 만큼 행복한 의사는 없다고 확신한다.

“의사는 언제나 아픈 사람을 보는 직업이에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있고 생각보다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반면 산부인과는 행복한 과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 가득한 순간을 함께하고 환자들과 서



로 기뻐하며 감사 인사도 가장 많이 받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가 된 것이 무척 행복합니다.”

퀸스산부인과가 개원한 지 이제 12년 차가 되었다. 처음 병원을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산모의 안정을 위해 병원 전 직원이 친절을 모토로 삼고 있다.

“우리 병원 선생님들은 실력은 기본이고 환자들에게 무척 친절합니다. 산모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고민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뿐 아니라 간호사, 직원들에게 모두 환자를 향한 친절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은 병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여 천안의 대표 산부인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 전영주 지점장은 “퀸스산부인과는 2017년 개인 대출을 통해 IBK기업은행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19년 동반성



장대출을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며 “병원이 성장한 만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맞춤 금융 컨설팅과 직원 복지 전문 금융 우대상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의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퀸스산부인과 서기원 대표, IBK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 전영주 지점장
퀸스산부인과 이항재·정성윤 대표

! 퀸스산부인과 운영 노하우

1. 언제나 환자들에게 친절하라.
2. 윈스톱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라.
3. 실력 있는 의료진, 최상의 시설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라.

퀸스산부인과

원 장 이항재·서기원·정성윤·송은석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13
전 화 041-569-2000 홈페이지 <https://www.queensmd.co.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81 수학에 빠지다

86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

91 연애의 끝은

95 두 병아리의 세상 체험기

여자는 모른다

99 나도 남자랍니다

102 빨간불 줄까? 파란불 줄까?

106 가장의 무게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수학에 빠지다

애청자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부모님이 틀어놓으신 ‘여성시대’를 듣고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그날 이후로 당당이가 되었는데요. 요즘 제가 일생일대의 고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이 계신 ‘여성시대’에 조언을 얻고자 오랜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주로 기술을 가르쳐서 국어,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딱 두 번씩만 수업하는데요. 남들은 부럽다 하지만 저는 그 두 번의 수학 시간도 정말 싫었습니다. 작년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엄하셨거든요. 점심 먹고 듣는 5교시 수업에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그러다 깜빡 졸기라도 하면 “야, 야, 야! 거기 3분단 둘째 줄, 안 일어나?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어!” 하고 막 호통을 치시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올해 2학년 때부터는 정말 새로운 쌤이 오시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 소원이 이뤄진 겁니다. 2025년 3월 4일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이거든요.

“얘들아, 안녕? 반가워. 나는 이번에 옆 학교에서 새로 전근 왔

고 너희 수학을 가르칠 거야?”

남자 공업고등학교에 30대 초반 젊은 여자 선생님의 등장이라니! 김 선생님은 작년에 저희를 가르치던 호랑이 쌤과는 다르게 정말 차분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너는 책 안 가져왔어? 그럼~”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 서서 수업 듣겠습니다.”

“아니, 아니~ 책 안 가져온 건 괜찮은데 수업은 들어야 하니까 짝이랑 같이 보라고.”

책을 깜빡했는데도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면서 밝게 웃으시는데 아~ 누가 그랬던가요?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수학이 이토록 자비롭고 행복한 학문이었다니. 엄청난 충격이었죠.

선생님과의 첫 수업 이후 제 학교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학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선생님을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추리력, 사고력 등 현대사회에서 지성인이라면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을 이 수학이 길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과목을 겨우 이만큼밖에 안 가르쳐 주다니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죠.

“애들아 풀다가 질문 있으면 손들고 쌤 불러줘.”

“선생님! 여기 그래프가 이상한데 제가 식을 잘못 구한 걸까요?”

“우와~ 너무 좋은 질문이네. 일단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볼까?”

선생님에게 폭 빠져버린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고 칭찬을 받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

글 꿰고요. 뭐가 저도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쯤 되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어요. 선생님을 향한 제 마음을 자각하고 난 후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고 얼른 친해져서 선생님만의 ‘에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바로 얼마 전 5월 2일 나름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반 진도가 빨랐는지 선생님께서 남은 20분 정도를 자유시간으로 주셨어요. 애들이 ‘만세~’ 쾌재를 부르며 휴대폰을 꺼낼 때 저는 쭈뼛쭈뼛 선생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선생님~”

“응~ 왜?”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 오늘 하늘이 참 예쁘다. 아참! 너희 얼마 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다녀왔다면? 어땠어?”

“아, 제가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거라서요.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막상 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아 맞다! 제가 사실 내일 생일인데요. 선생님은 생일이 몇 월이세요?”

“아~ 비행기가 처음이었구나? 괜찮아.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비행기 처음 타봤어. 그리고 선생님 생일은 3월이야!”

저는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말해주기로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속사포 랩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선생님 생일이 3월 며칠인지도 궁금하고 고등학생 때 어느 나라에 다녀오셨는지도 알고 싶었

는데 제 얘기만 줄줄 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조금 슬펐어요.

바로 며칠 전 그날 처음으로 선생님이 계신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꼭 여쭙봐야 할 질문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잠깐 여쭙볼 게 있어서요.”

“응, 무슨 일이야?”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 날이라 수학 수업이 두 번 빠지잖아요? 이 수업은 언제 보충해 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선생님 수업 들으러 학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 잠시만? 허억~ 그러네. 선생님이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고마워. 큰일 날 뻔했다. 이건 얼른 조정해 보고 정해지는 대로 알려줄게.”

순간 선생님의 ‘고마워~’ 이 한마디가 ‘우리 당당이가 최고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 그날 설레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물론 압니다. 알아요! 선생님에게 저는 한 명의 제자에 불과하고 제가 마음을 키워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걸요. 그런데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걸 어떡해요. 저 요즘 앓으나 서나 선생님 생각밖에 안 나고요. 수학 수업이 없는 날에는 너무 우울해서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예요.

‘여성시대’ 당당이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학교 선생님 한 번쯤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신 거죠? 지금 제가 이상하고 유별난 게 아닌 거죠? 이대로 선생님을 좋아해도 괜찮을지. 또 제 마음을 반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고 선생님의 ‘애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양희은 선생님, 김일중 선생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랑 사랑 사랑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

애청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10년 가을. 당시 저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고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선이라고는 ‘집-공사장-식당’이 전부였는데 20대 후반에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게 측은했는지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해주더라고요.

상대는 제 또래의 헤어디자이너. 마침 근무하는 미용실이 근처라고 하기에 잠깐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단정하고 수수한 분위기, 거기에 영화 <건축학개론> 수지를 닮은 아름다운 미모까지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던 거です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자 그녀가 어색하게 웃는데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이 남자 별로네’ 싶었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동자. 말 한마디 없는 어색한 분위기. 조금 움츠러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상형이니까 일단 대화를 이어 가보려 했습니다.

“취미생활은 뭐예요?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하면 맞은편 극장에서 데이트 어떠냐고 하려 했죠. 그런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더니 “싫어하진 않아요” 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대답에 갑자기 뭘지 모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좋아하는 장르라도?”

“그냥 뭐 딱히.”

“액션 영화 어때요?”

“별로….”

“로맨스는?”

“더 별로.”

“스릴러는?”

“그건 진짜 별로!”

이쯤 되니 분위기도 썰렁하고 저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휴, 됐다~ 자리에서 이만 일어나려는데 “근데요 인테리어 하시면 좀 섬세하시겠어요?” 뜬금없이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 꽂히는 겁니다. 그 말이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도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나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남들보다 더 끈기 있고 세심한 성격을 살려 그녀에게 한 번 더 다가가겠다고요.

머칠 후 저는 작은 꽃다발을 사 들고 그녀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꽃은 내가 직접 골랐다고 꼭 어필해야지. 오늘은 영화 말고 음식 취향을 물어봐야겠다.’

머릿속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마지막 모퉁이를 도는데 바로 앞에서 거친 고성이가 들리더군요.

“에라이~ 그럴 거면 집구석에서 요리나 하지. 차는 왜 끌고 다녀?”

자세히 보니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아저씨 앞에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 말로는 그녀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조심조심 골목길을 돌던 중 상대 운전자랑 접촉 사고가 날 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고도 안 났고 차도 멀쩡한데 상대방이 과하게 폭언을 퍼붓고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여기 초보운전 스티커 안 보입니까? 보니까 진짜 사고가 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뭘야? 그쪽은 뭔데 끼어들어.”

“여기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공개적인 곳에서 자꾸 인신공격하시면 그거 고소감이에요 아세요?”

“고소? 참나! 에잇, 재수 없게 진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상대 운전자도 슬슬 눈치를 살피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주먹다짐은 유치원 때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일이 커질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녀도 이런 제 모습이 의외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긴 어떤 일로?”

“아, 이거 주고 싶어서요. 타이밍이 좀 그렇죠.”

그녀는 꽃다발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꽃이요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꽃테리어’도 도전해 볼까 해서. 하하…”

“저녁 안 드셨죠? 제가 저녁 살게요.”

저희는 그날 저녁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은근슬쩍 매력 어필도 해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죠.

“아까처럼 미안하다 했는데도 계속 화내는 사람은요 더 속이고 들어가면 안돼요. 그냥 화풀이하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저를 부르세요. 제가 나와서 확 그냥~”

“확 그냥?”

“엎어치기는 못 해도 손잡고 같이 도망가 줄 순 있어요.”

그러자 그녀가 처음으로 활짝 웃더라고요. 그 순간 앞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웃겨주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제 진심이 느껴졌는지 조금씩 보이지 않던 경계를 풀어줬습니다.

“손, 왜 그래요?”

“아~ 일하다가 드라이기에 데였어요.”

“병원은요?”

“괜찮아요. 대충 연고 바르면 돼요.”

“아잇, 그러지 말고 이것도 붙여 봐요. 흥 안 지게 하는 밴드데 저도 인테리어 하면서 몇 번 데이거든요. 관리 안 하면 흥 쳐요.”

“고마워요.”

그렇게 서로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퇴근 후에 만나 ‘드디어’ 영화도 보고 늦은 새벽까지 전화도 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어느 봄날 저희는 벚꽃이 내리는 공원 어느 벤치에 앉아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덜 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제가 부족하고 서툰 게 많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볼래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제게 처음 꽃다발을 받은 그날처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반지를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갑자기 이래서 당황했어요?”

“음… 조금 더 고민해 볼래요.”

“에이~ 진심이에요?”

“김밥 한 줄 사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진짜요? 그럼 지금 당장 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차가웠던 그녀가 마음을 열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허락해 준 그날. 제가 건넨 반지를 끼고 어느 때보다 활짝 웃던 그날을요.

사랑 사랑 사랑

연애의 끝은

애청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스무 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만나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구릿빛 피부에 운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듬직해 보인다고, 여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다고, 너는 참 좋겠다고 어찌나 칭찬하던지. 그런데요 사실 제 남자친구는요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냥 애예요, 애!

언제 한 번은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같이 저녁 먹기로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 여보세요?”

“아이, 에임이 그게 뭐냐? 어어? 힐, 힐(heal)!”

“하... 야. 어디야?”

“에이, 못 맞췄죠? 완전 잘 피했죠? 열라 약 오르죠? 거봐.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야! 안 들려? 어디냐고? 지금 일곱 시 십 분이라고!”

이 짜식이 미안하다고 금방 나오겠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전화를 끊어!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자친구가 자주 다니는 학교 앞 피시방을 찾아갔고 거기서 친한 동기랑 나란히 앉아 옆드려 싸! 옆드려 싸! 열심히 총 게임을 하는 남자친구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또 말은 잘해요. 친구랑 같이 ‘동반입대’ 신청하려고 잠깐 피시방에 왔는데 군대에서 누가 더 총을 잘 쏠 것 같냐고 투닥투닥하다가 이걸로라도 실력을 겨뤄보자면서 총게임을 몇 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연락을 하든가. 네가 애야? 그거 잠깐 문자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애 아니지. 어엿한 성인이지. 근데 나 진짜 딱 한 판만! 지금 2대 2 무승부다. 너, 야구도 9회 말 무승부면 연장전 하는 거 알지? 축구도 이 챔스 경기에선 말이야 무승부가 웬 말이야. 승부차기까지 끝장을 본다니까. 어? 제발 어? 아아아앙~”

저는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들어가면 철이 좀 들겠지, 내 소중함도 깨닫겠지, 그래서 더 잘해주겠지 하고 내심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데~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부탁? 뭔데?”

“동반 입대한 지식이 있잖아. 개가 여친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지금까지 편지 한 통 못 받았대. 그래서 그런데 네가 지석이 편지도 좀 써주면 안 돼?”

한창 놀러 다닐 나이에 고무신 신은 것도 서러운데 제가 ‘남자 친구의 친구’ 편지까지 챙겨야겠냐고요. 그래도 듣고 보니 지석이? 지숙이?

암튼 개가 좀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해서 편지도 써주고 면회 갈 땐 담배도 사다 주고 그렇게 두 남자의 고무신 역할을 해냈더랬죠.

남자친구가 전역 후 복학을 할 때쯤 저는 유치원 교사 일을 시작하면서 서로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사는 지역도 달라지고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마저도 남자친구의 축구 동아리 모임에 밀려 못 만날 때도 있었죠. 그쯤 되니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애를 계속 만나야 되냐? 애는 나를 사랑하긴 하나?’ 마음이 심란했어요.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나랑 헤어지고 싶어? 이제 내가 질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저 공보다도 못해? 너는 나랑 왜 만나? 축구랑 게임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혼자 살면서 실컷 해. 나는 시간 날 때만 나만 나누는 사람 싫어, 싫다고!”

“야, 울어? 진짜 울어? 아잇, 울지마. 야아…”

거의 10년 가까이 만나면서 눈물을 보여준 적이 손에 꼽는데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는지 안절부절못하더라고요.

“내가 내가 잘할게! 축구 동아리도 이제 안 갈게! 게임 아이디도 지울게! 아니다. 지우는 것까진 오버고 잠깐 휴면계정으로 둘 릴게!”

“휴면계정? 필요 없어! 지워, 지우라고! 흐어어어어어~”

“아아아~ 알았어 알았어! 지울게! 오늘 집 가서 바로 지울게.”

헤어질 뻔했던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도 아이디를 지우진 못했지만 많이 즐였고 축구 동아리도 제가 시간이 안 되는 날에만 맞춰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20년 넘게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화해하면서 누구보다 가깝게 누구보다도 뜨겁게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길었던 연애는 작년에 끝을 내게 됐어요. 준비했던 임신에 성공하면서 2024년 5월 18일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사회는 남자친구와 동반입대를 했던 지석이가 봐줬고 축가는 지석이의 부인이 불러줬어요.

청첩장을 보낼 때 다들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이런 장수 커플은 처음 봤다며 맨날 으르렁 대면서 싸우더니 결국 결혼하냐며 많이 축복해 주셨죠. 저희 부부는 지금 9개월 된 아기와 함께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애의 끝은 이별 아니면 결혼이라고들 하던데 저희 커플이 20년의 연애 끝에 결혼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하네요.

사랑 사랑 사랑

두 병아리의 세상 체험기

애청자

결혼 28년 차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때론 아내와 작은 신혼집을 꾸리던 옛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때 우리 집은 방 한 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지요.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저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신혼치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신혼 초에 우리 집에는 종종 외판원들과 종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직접 겪진 못했는데 아내가 순진한 마음에 기꺼이 현관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한 번은 큰애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오후, 초인종 소리가 멥동 하고 나서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

더니 젊은 외판원이 서 있었대요.

“목이 너무 마른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가 “네~ 잠시만요” 하고 물을 뜨러 간 사이 그 수줍은 외판원은 이미 거실까지 들어와 우리 아기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아기는 첫 3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시기에 좋은 책을 읽어주면 두뇌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설명은 마치 신기루처럼 아내를 현혹시켰고 육아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아내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성경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책 내용 설명, 아이의 발달 과정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듣다 보니 정말 그 책이 꼭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조심스레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요?” 하고 물었고 “평소에는 80만 원인데 시원한 물 한 잔도 주셨으니 이 대만 특별 할인으로 50만 원에 드릴게요.” 그렇게 아내는 당시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50만 원짜리 동화책 전집을 털컷 사버렸답니다.

저는 퇴근 후 거실에 한가득 쌓여있는 책 상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죠.

“아니 여보, 이게 다 뭐야?”

“외판원 아저씨가 아이한테 정말 좋다고 해서 그만. 당신도 애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수한 마음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거실에 앉아 책을 한 권 한 권 펼쳐보며 아

이가 글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꼭 이 책들을 다 읽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혼자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대요.

“저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잠깐만 사용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건강식품을 파는 중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인정 많은 아내는 화장실 문까지 손수 열어주면서 빨리 사용하시라고 아내를 헤드렸고 그녀는 나오자마자 감사 인사와 함께 건강식품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가방에서 슬그머니 뭘 꺼내길래 봤더니 ‘동충하초’더라요.

“이게 남편분한테 아주 좋을 거예요. 남성 건강에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내는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집에까지 들여놓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그녀가 민망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비싼 동충하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작 저는 비위가 약해 그걸 입에 대지도 못해서 결국 장인어른께 선물로 드렸죠. 다행히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사위가 사줬다며 한동안 주위 분들에게 저를 엄청나게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아내의 착한 마음씨에 웃픈 표정을 지었더랬죠.

세월이 지나면서 멋모르던 신혼의 병아리 부부도 차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조금만 열이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밤낮없이 응급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모두 접고 달려와 아내와 함께 아이를 들쳐 업고 응급실로 향했지요. 별거 아니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도 안심하지 못했고 “우리가 뭘 잘못된 걸까? 아이한테 큰일이 생기면 어찌지?” 하며 불안과 긴장 속에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둘째가 열이 났을 때 아내는 침착하게 아이의 체온을 재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더라고요.

돌아보면 신혼 시절에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외판원에게 속아 비싼 물건을 사고 사소한 일에도 과잉 반응하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비싼 동화책 전집은 아이들의 폭넓은 상상력을 키워줬고 장인어른께 드렸던 동충하초는 지금까지도 제가 ‘효도를 잘하는 사위’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혹시 지금 신혼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순간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신혼은 때로 전쟁 같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나도 남자랍니다

애청자

저는 소위 여초 집단! 경비 아저씨 빼고는 직원 대부분이 여자인 화장품 회사의 유일한 청일점 남자 직원입니다. 워낙 작은 회사라서 누구네 집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 누구 파우치에 블러셔가 제일 예쁜지 틴트색은 몇 개나 갖고 다니는지 서로 다 알아요.

블러셔? 틴트? 그게 다 뭐냐고요? 블러셔는 볼에 빨갭게 바르는 화장품 이름이고 틴트는 입술에 바르는 건데 남자들은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제 죽마고우 친구들도 제가 애써 설명해 주면 “입술에 바르는 거는 루우즈 아니냐? 루우즈.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하던데?”라고 말합니다.

군대 동기들도 다 비슷합니다. 세수하고 얼굴에 바르는 건 올인원. 아예 안 바르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선블럭이나 선크림은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는 놈들도 많아요.

“야, 너는 세수를 지금 뭐로 하는 거야?”

“이거 폼 클리넨데 왜?”

“세수는 그냥 비누로 하면 되지. 뭐 기지배처럼~”

“어휴~ 비누로 하니까 니 모공이 그 모양이지. 요즘은 화장 안 해도 미세먼지랑 공해 때문에 이런 걸로 씻어줘야 해.”

“에이, 남자가 무슨~”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늘 이렇게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나’ ‘남자가 무슨 피부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놀림당하고 구박받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취향과 관심사를 살려서 당당하게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신나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험 웬걸요.

“배 대리님, 남자 맞아요? 생수통도 한 손으로 번쩍 못 들어?”

“배 대리는 그냥 원샷해. 무슨 남자가 생맥주 오백도 원샷을 못 하나? 남자 맞니?”

이뿐만이 아니에요. 말끝마다 ‘이그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가 후진을 잘해야지’ ‘남자가 왜 그렇게 웃냐?’ ‘남자니까 씩씩하게 좀 걸어’ ‘남자가 무슨 짜장면이야 짬뽕 먹어.’

아악~ 진짜 못 살겠어요! 회사 직원이 대부분 외향적 성격에 말 많은 여자들뿐이라서 하루 종일 어찌나 잔소리에 참견들이 많은지. 특히 팀장님은 상사라서 친구들처럼 맞짱을 뜰 수도 없고 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힘도 없고 목소리도 작고 운동도 잘 못하는 초식남인 거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저요 근대도 갔다 왔고요. 예쁜 여친도 있는 대한민국 사나이라고요. 근데 출근해서 퇴근까지 그



놈의 “남자가~ 남자가~” 이 타령을 하루 열 번 이상 들으며 살다 보니까요 요즘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괜히 제 스타일도 아닌 데 머리도 군인처럼 짧게 자르고 말도 일부러 터프하게 막 지르고 보는 성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얼마 전엔 여자친구가 “자기 요즘 왜 그래? 나는 자기가 박보검처럼 다정한 남자라서 좋은데 요즘은 가끔 딴 사람 같아. 낯설어.”

저, 이직할까요? 그녀를 잃기 전에 이놈의 회사를 잃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저 어떡할까요?

여자는 모른다

빨간불 줄까? 파란불 줄까?

애청자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나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 항상 다정하고 자상하게 잘해줍니다.

“당신은 좀 쉬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퇴근길에 장도 봐오고요. 주말이면 저 힘들다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요. 빨래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요리도 직접 해주는데 다 맛있어요.

“야, 너는 진짜 전생에 어떤 나라를 구한 거니? 네 남편 대기업 다녀서 월급도 괜찮게 받지?”

“그냥~ 뭐 남들 다 버는 만큼?”

“어머머머 이 지지배 내숭 떠는 거 봐. 너 지금 입꼬리 씩씩씩룩한 거 다 봤거든?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해. 왜 행복한 걸 감추고 사

냐.”

저만 보면 다들 ‘결혼 잘했다, 부럽다, 좋겠다, 남편한테 잘해라~’ 그렇게들 말하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걸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제 남편에게도 딱 한 가지 정말 제발 좀 고쳤으면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주식! 먹는 주식 말고 그거 있잖아요. 빨강 파랑 오르고 내리고 돈 벌려고 하는 투자 상품이에요. 남편은 한 방을 노리는 승부사 경향이 있어서 평소에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즐겨했습니다.

그런 투자 쪽으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저는 그저 남편이 큰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해 남편에게 차라리 “여보, 그냥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사는 게 어때? 그것도 일 등 하면 몇억씩 주잖아?”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할 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요즘 내 또래 직장인 남자 중에 주식 안 하는 남자 없어. 내 친구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잖아. 그냥 적금 넣는 것처럼 생각해. 나 지금 도박하는 거 아니고 투자하는 거야. 투자.”

주식이 어떻게 적금과 똑같은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남자라면 다 한다고 안 하면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하니까 또 강하게 말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재미로 진짜 적금 넣듯이 소량의 돈만 넣는다고 저를 안 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언제부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밥도 잘 못 먹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서 집에 오면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처음에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갈수록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잘 안 마시던 술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났구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붙들어 앉혀놓고 진지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말해! 나 당신 아내야. 당신한테 벌어진 일들을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러자 망설이던 남편이 심란한 얼굴로 입을 열더군요.

“우리 결혼 초부터 쪽 모아왔던 적금 있잖아. 우리 집 장만한다고 매달 붓던 거.”

“어! 그게 왜? 그 애길 갑자기 왜 하는 거야?”

“그걸 내가 한 번에 크게 좀 불러보려고, 아, 진짜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주식이랑 코인에 좀 넣었는데. 하~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한데? 그걸 해지한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돈 지금 어딴데? 왜 미안한 건데?”

들어보니 남편이 진짜 큰돈을 잃었더라고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년을 내 집 마련하겠다고 아등바등 아끼며 살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억척을 떨며 살았나 싶어서 허탈하고 허무했어요.

나한테는 소소하게 재미로만 한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더니 저 몰래 목돈을 그것도 우리 적금까지 말도 없이 해지해서 투자인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 배신감에 꽤 씁하기까지 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라 이 일은 결국 시부모님께서도 아시게 됐는

데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님도 그렇게 주식을 하셔서 돈을 많이 잃고 어머님 속을 썩인 적이 많았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이런 것까지 부전자전이라니. 어미야, 내가 아들을 잘 못 키웠다. 너 얼굴 볼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한순간에 큰돈이 날아가니 속상해서 남편과 며칠 동안 대화도 안 하고 혼자 울기만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우시는데 저도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남편을 원망하고만 있을 수도 없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날아간 돈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 젊으니까 다시 으쌰으쌰 힘내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새출발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추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소액의 금액만 투자하고 있긴 한데 저는 또 큰돈을 날릴까 여전히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주식만 안 하면 진짜 참 완벽한 남편인데! 남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다 주식을 하나요? 주식 안 하면 나만 뒤쳐진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는데 대체 왜?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여자는 모른다

가장의 무게

애청자

어릴 적 제게 아버지는 늘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말이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죠. 학창 시절 친구들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축구도 하고 피시방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항상 일에 치여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시던 모습뿐.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늘 말없이 식사를 하셨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말씀을 붙이려 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응” 한 마디 하시곤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다정하게 말도 안 해주고 자상하게 안아주지도 않으실까, 뼈뚫한 마음을 품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한밤중에 공부하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불 꺼진 방에서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두 번, 세 번 그 낮고 조

용한 흐느낌은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아버지는 술 한잔을 앞에 두고 앉아 무릎에 팔을 낀 채 얼굴을 감싸 쥐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그 후로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아버지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셨는지 왜 그렇게 힘드셨는지. 그저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힘들면 울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전엔 몰랐습니다.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묵직하고 또 때론 외로운 것인지. 월급날이면 기분 좋게 웃으며 통장을 열지만 숫자 앞에서 한숨부터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학원비, 보험료, 공과금, 대출이자 빠져나가고 나면 제 용돈은 늘 뒷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지만 아무 말도 못 하겠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는 아빠가 늘 든든하다고 말해주시니까요.

“아빠는 슈퍼맨이야~ 슈퍼맨~”

이렇게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아들 앞에서 지친 표정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인데 마침 아들 유치원 발표회와 날짜가 겹친 겁니다.

“아빠 꼭 와야 돼!”

아이는 며칠 전부터 기대를 했습니다.

“당신, 올 수 있겠어?”

아내는 바쁜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건만 결국 회의 일정을 조정하지 못했고 저는 아들에게 못 가게 됐다는 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이번 발표회 아빠도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가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치원까지 태워다 주는 길에 아이는 차 안에서 제 손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펴보니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셋이 손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빼뿔빼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잘할게. 걱정 마.>

운전 중이었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 아버지처럼요.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아버지의 셔츠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졸라서 입어보겠다고 했던 그 셔츠. 당시 아버지는 말없이 꺼내주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입으니 팔이 길고 어깨가 넓어서 우스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그 셔츠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어릴 땐 험렁했던 셔츠가 이제는 몸에 꼭 맞더군요.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 얼굴인데도 왠지 모르게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등은 구부정하고 어깨는 무거워 보이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한… 꼭 예전의 내 아버지 같았지요.

그 후로 저는 종종 그 셔츠를 꺼내 입습니다. 이상하게 그 셔츠를 입으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기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 셔츠를 입고 그토록 아무 말 없이 우리가족을 지켜내신 걸까?’ 실적 압박으로 회의 도중 언성을 높이다 팀원들과 어색해진 날도 아내와 살짝 다툼이 있던 날도 아이가 떼

를 써서 속상했던 날도 저는 그 셔츠를 입고 술 한 잔 따라 마시면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며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어떠신지 여쭙면 “그럭저럭이지 뭐” 짧게 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응석처럼 “저는 요즘 좀 힘들어요”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럴 거다. 다 알아.” 아주 안쓰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대화는 짧지만 그 안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별말씀 안 하셔도 다 알겠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저도 조금은 알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묵묵히 출근하시던 뒷모습, 지친 몸으로도 어린 아들의 장난에 미소 지으시던 얼굴, 가끔 한숨을 내쉬던 그 조용한 밤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고 견뎌낸 시간인지를 이제야 느낍니다.

어릴 적엔 그저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고 표현이 아닌 책임이었다는 것어요.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아버지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했는지를 너무 늦게 알아채 죄송합니다. 그 무게를 더 빨리 덜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단단한 어깨와 따뜻한 손길을 닮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하고 계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돌아보면 잠깐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6월이 시작되면서 공연히 조마조마했다. 오랜 시간 준비한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공개방송에 행여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해서. 다행히 날이 정말 좋았다. 하지만 오전 중에 갈아놓은 의자 위로 햇살이 짙해서 찜질방처럼 뜨거워졌다. 그런데도 1200명 넘는 사람들은 잘도 견디셨고 불편한 점이 있으셨겠지만 불평이 조금도 없었다.

우리는 준비하느라 일찍 출근했다지만 아침 8시부터 오신 분들 앞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사시는 곳이 상암동 근처도 아니고, 먼 곳에서 몇 시간씩 걸려 오셔서 서울의 자체 분들 댁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열정 앞에서 고개 숙여진다. 출연진도 객석도 하나같이 집중된 에너지로 그 시간을 순삭시킴에 놀라웠다.

공개방송 뒷정리 후 7시 반 넘어 관계자분들과 저녁을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여성시대 방송 26주년 기념을 간단하게 했다.

민기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회식 자리에서 나의 소회는 이랬다.

“26년 세월이 세월도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여성 시대는 진행자의 능력보다도 당당이님들 편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배달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체력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되는 데까지 가보겠어요.”

그날 노 작가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빼먹어서 유감이었다. 나보다 더 오랜 시간 묵은 사연들과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니 세월이 가도 되새김질이 된다.

사람들은 그리운 옛 진행자분들을 화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특히 반갑다고 하셨다. 그날 방송의 결정타는 역시 남편 앞에서 아이 고교 졸업하면 너랑 안 살 거라 털어놓은 여성분의 얘기가였다. 모든 분들 속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었다. 통쾌하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준 당당이님들의 솔직함이 민심 그 자체였다.

공개방송 끝내고 며칠 후, 우리 미미가 갔다. 만 18년 하고도 석달을 살았다. 사람을 그만큼 키웠다면 어떨까? 엄마 생전에 “미미야~ 내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갈래? 나 먼저 가면 너는 더 살다와라” 하셨었다.

결혼생활 만 38년 동안 무지개다리 건너간 강아지가 네 마리다. 아직 초코가 남아있는데도 집안이 허전하다. 초코야! 외로워서 어찌면 좋으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공개방송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지금부터는 그날 느꼈던 감정과 감동을 써보려 한다.

6월 6일 금요일 오후 네 시에 시작이었던 공개방송을 위해 우리 디제이 둘은 오후 한 시에 상암에 도착했다. 이미 그 시각부터 로비에는 입장 티켓을 받기 위한 당당이 분들이 여럿 계셨다. 이어지는 반가운 인사와 사진 요청들. 대본 리딩을 위해 대기실로 가야겠기에 모든 분과 함께할 순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돌 팬덤이 부럽지 않았다. 시작도 전에 반겨주시는 당당이 분들 덕분에 신이 나고 또 힘이 났다.

대기실로 이동해서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이미 가을 운동회를 마친 듯이 새빨갭게 익어있는 안동진 피디의 얼굴을 보고, 새벽부터 시작된 야외무대 설치로 인해 벌써 그리되었단다. 그리고 이미 커피 두 잔씩을 마셔버렸다는 작가들의 이야기에 이들이 얼마나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갔다. 그런 제작진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떨리기 시작한다. ‘아 이거 공개방송이 장난이 아니구나’.

천이백여 분의 당당이를 모시고 드디어 공개방송이 시작되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매일 아침 두 시간씩 여성시대를 함께하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 얼굴을 마주하니 긴장감이 배가 된다. 슬쩍 옆에 희은 누님을 바라본다. 역시 베테랑. 객석 전체를 아우르며 진행을 이끄신다. 좋아! 매일 하던 대로 따라가 보자.

이어지는 초대가수의 무대. 그 시작은 황가람이었다. 역시 는 역시. 버스킹으로 단련된 노래 실력이 야외무대에서 더 빛을 발한다. 특히나 팝송을 부를 때 그의 음색은 정말 황홀했다.

이어지는 가수 힌. 음원 차트를 씹어먹는 고음의 가창력을 눈앞에서 보다니! 우렁찬 남성 팬들의 “사랑해요 박혜원” 함

성이 마치 군부대를 연상케 했다. 가창력의 비결이 무어나는 질문에 신이 나서 불러야 한다는 가수 흰. 체크포인트다.

드디어 고막남친이라 불리는 폴킴의 무대. 역시나 달다 달어. 영어 폴(pole)이 우리말로 긴 막대기, 장대. 그러니까 폴킴은 김 장대. 나도 성이 김씨에 키도 장대만큼 크다. 노래 실력만 다르네. 희은 누님과 제게 준 꽃다발도 고마워요 폴킴.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무대 뒤 희은 누님부터 찾아오셨다. 양희경 선배님과 동갑이라서 “희은 누나~”하며 찾아온 영원한 돌아이 전영록 선배님. 여전히 소년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다.

공개방송의 마지막 무대는 우리의 양희은 누님이셨다. ‘상록수’로 피날레를 장식할 때는 무대 뒤에서도 소름이 돋았다. 최고 최고! 이렇게 우리 여성시대 팀은 당당이분들과 함께 ‘끝내 이기리라~’ 가사 말처럼 멋지게 공개방송을 해냈다. 다음 공개방송은 또 언제 하려나?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나저나 그날 수고한 모든 스텝들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우리 피디 작가들과 노래방에 가서 두 번째로 소름이 돋았다. 노래를 왜 다 잘하는데? 그리고 집엔 언제 갈 건데?

인생은 당당하게, 상속은 단단하게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계약, 설계,
관리, 상속은 물론
기부와 사회 환원까지

당신의 뜻을,
단단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IBK 내똥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055호(2025.05.19.~2026.05.1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3339호(2025.05.16.) 유효기간(2026.05.12.)

※ 자세한 문의는 가계유언집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진상발명서 및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변동·시장금리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계약을 체결할 무도 인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 서비스의 기본계약보수(연회)는 신탁본인의 0.5%, 집행료(추후청)는 신탁본인의 0.2~0.8%입니다.



IBK 기업은행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국민연금 받거나 IBK로 국민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7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든든하게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 앱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이벤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876호(2025.06.13)[유효기간:2026.06.12]

· 이벤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팀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